

# ‘집 꾸미기 붐’... 인테리어·가구 앱, 소비자心 공략 ‘치열’

인테리어 수요 ↑... 기업 경쟁 ‘각축전’  
시공업체·가구제작 중개 확장 집중  
결정적인 서비스·기술 아직 부족해  
시장 2030년까지 44조 성장 ‘전망’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고도 견고한 인테리어 수요를 잡기 위한 IT업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3년, 길어진 실내 생활과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맞아떨어지며 인테리어 붐이 일었다. 과거 인테리어는 전월세 집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내집 마련을 포기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붐이 불었다.

엔데믹에 이른 현재도 2년 여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며 인테리어 수요가 이어지며 관련 앱(APP)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대부분 기업이 자사 상품 판매 내지는 소셜마케팅으로 적자를 면치 못해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평이다.

2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인테리어·가구 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앱 사용이 일상화한 2030세대가 인테리어에 큰 관심을 보이



오늘의집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3D 인테리어 서비스. 2D와 3D 모드를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가구 구매 전 시뮬레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쇼핑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집은 기술 확보를 통한 인테리어 조력 서비스에 힘쓰는 대표 기업이다. 소셜마케팅 기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2020년 가상 3D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키드로우와 기술을 제휴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의집은 AR 기능 고도화를 위해 현재 확장현실(XR) 엔지니어 등 개발자를 늘리고 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코어 엔진 개발자를 확보, 향후 AI를 활용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목표다. 지난 2021년 3D 인테리어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 1월에는 판매 가구 일부에 증강현실(AR) 기능을 적용하고, 소비자가 가구 구매 전 자신의 집에 직접 배치해볼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면서 앱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모바일인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준 지난 10월 인테리어 앱 이용자 수와 시장 점유율은 ▲오늘의집 ▲한샘물 ▲이케아 ▲자주(JAJU) ▲집꾸미기 ▲모던하우스 ▲원룸만들기 순으로 나타났다. 오늘의집과 집꾸미기, 원룸만들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앱은 모두 기성 기업의 온라인 앱이다. 한샘은 가구 상장기업이지만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종합몰의 성격을 갖췄고 이케아는 자사 가구만을 다루면서 동시에 배송 및 설치까지 전담하고 있다. 자주 또한 신세계인터내셔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의 쇼핑몰이다.

현재로서는 오늘의집이 강력한 커뮤니티

기능을 토대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IT업계에서는 아직 다른 플레이어의 진입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위 기업인 오늘의집 모회사 버킷플레이스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43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가 15.6% 증가한 점과 아직 각 기업들이 모두 가구 판매와 광고 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반응할 신규 서비스 론칭에 성공한다면 단숨에 패권을 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전히 결정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통해 이용자 확보에 성공한 곳은 없다. 현재 각 기업은 ▲3D/AR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인테리어 조력 ▲시공업체 및 가구 제작 중개 서비스 확장 등에 집중하는 상태다.

오늘의집은 기술 확보를 통한 인테리어 조력 서비스에 힘쓰는 대표 기업이다. 소셜마케팅 기반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2020년 가상 3D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키드로우와 기술을 제휴하고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의집은 AR 기능 고도화를 위해 현재 확장현실(XR) 엔지니어 등 개발자를 늘리고 있다.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코어 엔진 개발자를 확보, 향후 AI를 활용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게 목표다. 지난 2021년 3D 인테리어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 1월에는 판매 가구 일부에 증강현실(AR) 기능을 적용하고, 소비자가 가구 구매 전 자신의 집에 직접 배치해볼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한샘은 자사가 확보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2월 온라인 플랫폼인 통합한샘몰을 내놓으며 홈리모델링 부문을 시작한 후 지난달 홈퍼니싱 부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홈리모델링에서는 ▲아파트로 찾기 ▲엔택트 3D 제안서 ▲리모델링 매니저 기능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가 쉽게 자신의 집과 같은 아파트와 평수의 시공사례를 다양한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이어 홈퍼니싱 부문에는 ▲매장 상담 예약 ▲QR체크카드 ▲불박이장 셀프 플래너를 추가했다. 기업의 강점을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인테리어 앱 시장에 전문 IT기업 외 기성 가구 기업 등까지 합세한 데에는 인테리어 시장의 한편, 급격한 성장과 향후 성장 가능성 탓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0조원으로 예측하고 2025년 37조원에 이어 2030년에는 44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청 또한 홈 퍼니싱(집꾸미기) 시장이 2015년 12조 5000억원대에서 2023년 18조원 대로, 특히 셀프 인테리어 시장은 2008년 7조 원 시장에서 2023년 18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SK 렌터카 EV6로 편안한 제주여행 어때요?” 화성국제테마파크에 ‘하늘나는 택시’ 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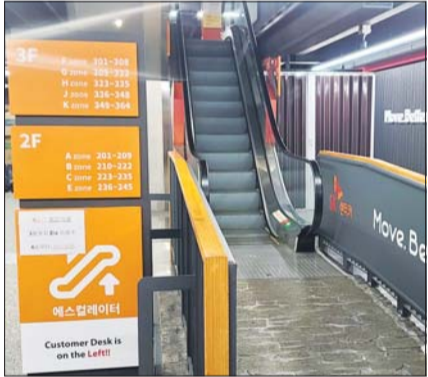
**김재웅의 봄봄봄**  
SK렌터카, 제주서 전기차 1200여대  
인수·반납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  
무료 충전 서비스로 가격 경쟁력 ↑

‘친환경 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제주도와 전기차 중심 친환경 렌터카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SK렌터카의 만남.

2일 업계에 따르면 SK렌터카는 제주에서 순수 전기차만 업계 최대인 1200여대를 운영 중이다. 2025년까지 3000여대를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하고 한국 전력을 비롯한 충전 업체들과 힘을 합쳐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랜만에 떠나는 제주 여행, SK렌터카를 사용해봤다. 다양한 전기차종을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EV링크를 사용하면 충전 요금도 가격 경쟁력도 충분했다.

SK렌터카는 제주에서 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제주공항 인근에 SK렌터카, 그리고 다소 떨어져있는 곳에 있는 빌리카다. SK렌터카가 더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고, 빌리카는 상대적으로



SK렌터카 제주지점 인수 주차장 입구.

로 저렴한 편이다. 모두 제주공항에서 무료 셔틀을 제공한다.

SK렌터카는 인수와 반납을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인수 시간이 되면 차량 주차 장소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출차할 때 신원 확인만 하면 된다. 덕분에 카시트 등 별도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전 설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빌리카는 제휴 업체가 아니면 출차하면서 따로 만나 설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주차장소에 가니 주행거리 550km 이상을 표시하는 완충된 기아 EV6가 서 있었다. 카시트도 설치된 상태, 출차 장소로 이동하면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을 확인한 후 바로 나가면 된다.

차량은 신차급으로 관리됐다. 누적 주행 거리가 2만km를 넘었지만 청소 상태는 완벽했고 냄새도 없었다. EV6 중에서도 차상위 트림인 롱레인지 AW D 어스 모델로, 무선충전을 비롯해 통풍시트와 2열 온열시트 등 주요 편의 사양도 대부분 갖췄다. SK렌터카 매출에서 중고차 판매 비중이 30% 수준,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량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V6는 제주 여행에 안성맞춤이었다. 대형 세단에도 비견할만한 2열 레그룸과 여러 개의 캐리어를 실어도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강력한 주행 성능에 안락한 좌석으로 해안 도로 드라이브를 더욱 즐겁게 했다. 주행거리도 제주도를 두바퀴 돌아도 남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SK렌터카 무료 충전 서비스는 부담없이 제주도 전역을 마음껏 달리게 도와줬다. SK렌터카는 EV링크 앱을 통해 제주 지역에서 무료 충전을 지원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SKT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 구축

K-드림팀 컨소시엄(이하 드림팀)이 신세계프라퍼티가 개발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시작으로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을 포함해 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가 참여하는 드림팀은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사 신세계프라퍼티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드림팀과 신세계프라퍼티는 화성국제테마파크내 UAM 서비스 구현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UAM 이착륙과 항행에 필요한 시설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UAM 기체를 타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골자다. /구남영 기자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000㎡ 부지에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여기에 테마파크, 호텔, 레지던스, 쇼핑몰, 골프장 등을 설립하고 UAM과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드림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화성국제테마파크 UAM 사업에 필요한 운항 서비스, 버티포트 운영, 교통관리, 모빌리티 플랫폼 등 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에서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역량을 활용해 UAM 서비스 전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UAM 기체를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운항관리 시스템과 상공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 LGU+ 아이들나라, 아동 교육사업 확장

오리지널 콘텐츠 600여편 등 제공

LG유플러스는 키즈 전용 서비스 ‘아이들나라’에서 실물 교재·교구를 선보이고 아동 교육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아이들나라는 지난 2017년 IPTV 부가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이후 키즈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현재 오리지널 콘텐츠 600여편과 양방향 콘텐츠 1만여편 등 총 5만여편의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올해는 ▲과학교구 키트로 구성된 교구 패키지 ‘쑥쑥 과학놀이’ ▲오감을 활용해 독후활동을 할 수 있는 교재 ‘남다른 문해력’ 등 실물 교구·교재 2종을 새롭게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B2C·B2B 등 유아동 교육 사업 확장에 나선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中企 협력사와 車 부품용 신소재 공동 개발

기아 변성 에폭시계 소재개발 성공

기아가 협력사와 함께 세계 최초 기술을 적용한 차량 부품 신소재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 기아는 범우화학, 에스앤에스와 함께 세계 최초로 변성 에폭시계 소재를 적용한 인쇄회로기판(이하 PCB) 보호코팅제 개발에 성공해 국내특허 2건과 해외특허 1건을 취득하고 부품 핵심소재의 공급망 개선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PCB는 전자장비 구성요소를 지지하

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전기 신호를 흐르게 하는 부품이다. PCB 보호 코팅제는 전기전자부품 및 인쇄회로기판을 보호하는 절연 코팅제로 온도, 부식, 충격 및 진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자동차의 전자 제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품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으나, 글로벌 무역보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소재공급망 확보가 어려워졌다. /양성운 기자 ysw@